

공간클럽 - 11

Space and Rooms

건축공간에 대해 막연히 동경하며, 좋은 건축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시간을 기억해본다. 그다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어찌보면 건축주의 요구와 구조, 기능, 설비, 건축비의 문제에 매달려 좋은 건축공간이 가져야할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축가에게 꿈같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해본 적이 없는 나만이 만들어낸 건축공간일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건축가의 꿈이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건축인이 건축적 삶을 사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근래, 건축공간에 우선하여 형태적 유희나 재료의 표현, 프로덕션의 즐거움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향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건축이 존재하는 고유한 영역은 결국 공간이라는 것에 모두 공감하리라고 생각된다. 젊은 시절 건축공간에 대한 향수를 달래며, 잊혀져가는 건축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일깨우고자 공간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건축공간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를 던지려고 한다. 더러는 일반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소주제를 통해 건축공간을 전혀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 주>

목 차

1회

- a. 공간은 하나인가요?
- b. 공간의 증거
- c. 공간은 없다

2회

- a. architectonic space
- b. 노자의 공간개념
- c. 5차원공간

3회

- a. 누구의 공간인가?
- b. 얼어붙은 공간
- c. 서랍속의 공간

4회

- a. 공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 b. 논리로서 공간을 이해한다.
- c. 공간지놈지도

5회

- a. 안티 중성의 공간
- b. 시간을 넣은 공간
- c. 공적공간과 사적공간

6회

- a. 공간의 밀도
- b. 공간의 전이
- c. 공간의 위계

7회

장면으로서의 건축공간

8회

- a. 쉬운 공간만들기
- b. 새로운 공간만들기
- c. 게임에서 보여지는 공간의 개념

9회

- a. 공간의 구별
- b. 공간의 대립개념

10회

- a. 마음속의 건축공간
- b. 언어속의 건축공간
- c. 돈이 되는 건축공간

11회

- a. 공간의 위치
- b. 형태, 체계, 위치
- c. 위치적 공간구성

12회

- a. 공간속의 기동
- b. 시나리오 있는 공간
- c. 창으로 본 공간

13회

- a. 공간계획
- b. 공간디자인
- c. 공간문법

공간의 위치

Position of space

a. 공간의 위치문제

1983년도에 모설계사무소에서 진행하는 현상설계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현상설계의 주제는 은행본점의 신축설계였다. 당시 은행본점은 크게 두가지 기능군으로 구분되고 있었다. 본점으로서 은행 내부의 사안을 처리하는 부분과 지점으로서 대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분이었다. 이러한 기능구분에 따라 당시 건물을 큰 부분과 작은 부분의 두개로 구획하는 것은 기능적 이유 뿐만 아니라 형태적으로 관습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운 방법이었다. 그리하여 이들 두 부분을 기정의 형태로 인정하고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는가? 이들 두 부분을 어떻게 하면 대지에 잘 앉힐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설계의 쟁점사항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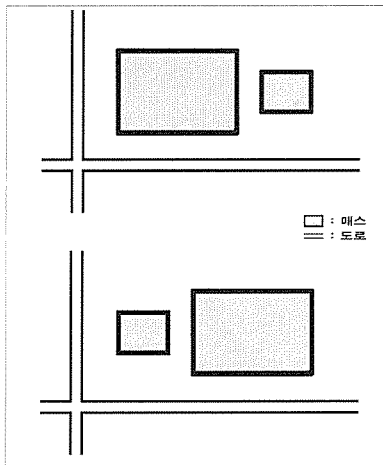


그림 1. 매스의 배치-2가지 경우

이에 대한 문제는 설계안의 최종 단계까지 남아있었으며, 결국 그림 1과 같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같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며,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르다고도 할 수 있는 두 개의 다이어그램을 추출해내게 되었다. 건물의 시스템과 기능적 관계 측면에서는 완전히 같고, 건물의 진입방법과 주변 건물과의 관계, 위치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이 둘이 설계의 마지막 단계에 도출된 것은

당시 필자뿐만 아니라 설계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을 당황시켰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왜 우리는 설계 초기단계에서 위치의 문제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지 못했는가? 건축물의 위치를 정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건축공간의 위치 문제로 부각된다.

경영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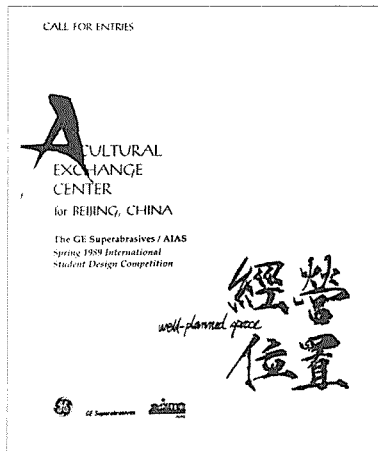


그림 2. 경영위치-현상설계 포스터

1989년 미국의 General Electric사에서 중국의 북경에 문화교류센터(A Cultural Exchange Center)의 현상설계를 제안하였다. 당시 현상설계를 안내하는 포스터에는 주제로서, 영문으로 Well Planned Space, 그리고 한문으로 經營位置가 표현되어 있었다. Well Planned Space 는 경영위치를 미국식으로 번역해 놓은 것 같았다.

“잘 계획된 공간”은 그 자체로 건축물의 설계를 대표하는 어휘로서 건축의 목표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말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 번역이전에 경영위치의 뜻을 한문의 원래의미로 번역을 한다면, 그것은 본래 동양화를 그릴 때 화법을 설명하는 어휘로 “구체화하여 그 위치에 둔다”는 뜻이다. 어떠한 형상의 구체화된 모습이 제 위치를 찾아 앉혀질 때 그림은 그럴듯해 보인다는 것이다.

이 화법의 설명에 따르면 동양화 속에 표현되는 바위, 폭포, 나무 등의 모습은 화가들의 마음속에 기억되어 있으며, 그림 그려지는 위치에 따라 적절히 구체화된 모습으로 자리를 차지한다. 물론 그림 그리는 방법의 전부를 대표하는 어휘로 볼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은 방식에 의해 그림 그리는 하나의 수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의 현상설계에서 그 뜻은 건축으로 확대되어 쓰여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전 건축을 본다면 이와 같은 방식은 상당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시대의 기와집은 수백년간 건축적 형상의 변화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의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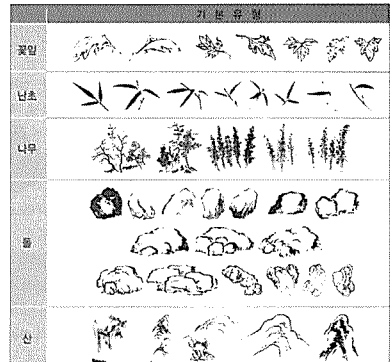


그림 3. 그림 요소와 요소가 있을만한 곳에 있을만한 대테일로 적용된 동양화

모습으로 드러난다. 기둥과 도리, 서까래, 기와지붕 등의 형상은 목수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으며, 목수는 주인의 요구와 주어진 규모, 대지의 형상에 맞춰 기와집의 건축적 형상을 구체화하여 적절한 위치에 배열한다. 그것이 건축의 핵심작업으로 해석된다.

경영위치, 우리가 이 의미를 건축에 적용하려 할 때 그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생각된다. 건축이 공간과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서양의 이론과 비교해도 형태적 사물이 구체화되어 공간의 체계에 맞도록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 의미는 일맥상통하며 공간과 형태가 서로 어떠한 상관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건축설계의 중심이 됨을 시사해주시기도 한다. 즉, 경영위치가 비록 그림 그리는 법을 설명하는 어휘이기는 하나 건축행위의 궁극적 목적을 대신하는 어휘라 하더라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

b. 형태, 체계, 위치

형태는 대상물이 갖고 있는 치수, 온도, 조도, 색 등의 성능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물리적으로 기술되는 내용들을 말한다. 일상적으로 대상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며, 대상과 표현이 일대일의 대응되는 관계를 갖는다. 마치 학급의 전학생이 그들의 이름으로 각기 구별되는 것과 같다.

체계는 내적인 성능을 기술한 것이라기 보다는 入/出의 흐름에 대해 설명하는 정보로서 위상적인 내용이다. 이것은 대상을 다른 것과의 관계로서 설명한다. 주택에 대한 체계는 이웃간의 관계나, 외적조건(통신, 소음, 전망 등)에 관한 것일 수 있다. 체계는 형태를 관계로서 살피는 것으로서 형태의 작용원칙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술실을 예로 들어 볼 때, 수술대의 모양은 형태에 관련한 정보에 의해 정해질 수 있으나, 그것의 배열, 다른 것과의 관계는 체계에 관련한 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환기를 위한 에어컨의 설치에 따라 수술대의

위치, 방향이 고정되며, 출입구, 다른 설비의 위치가 고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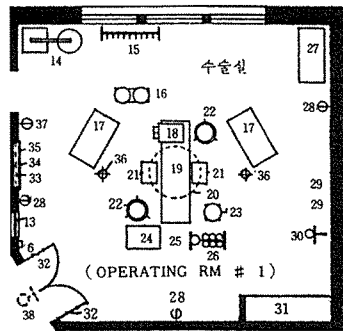


그림 4. 수술실의 수술대 배치체계

형태는 대상의 레벨에 따라 그 내부에 체계적인 정보를 수용하기도 하는 성질을 갖는다. 예를 들어 도시라는 대상을 두고 형태로써 언급할 때, 그 형태 내에는 도시인, 도시의 경제규모, 환경공해 등 그 내적, 물리적 기술내용과 도시 내의 에너지 공급체계, 교통망, 상하수도 체계, 도시의 스카이라인 등 그 도시의 체계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또, 도시는 농촌과의 인구이동, 식량공급 체계, 개발확산 등의 체계에 관련한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도시를 포함한 지역의 형태적 정보가 되기도 한다. 즉, 형태는 그 내부에 부차적인 형태적 정보와 체계적 정보를 갖고 있으며, 또 다른 체계적 정보와 합쳐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게 된다.

형태와 체계에 대한 이러한 관계로부터 Heath는 디자인 과정이 형태적인 정보와 체계적인 정보의 결합에 의해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정보를 분리하여 건축공간의 구성과 연계해 본다면, 형태에 치중된 공간의 구성은 여타의 부분과의 관련성을 비교적 의식할 필요가 없는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behavior setting을 들 수 있으며, 체계에 치중된 공간 구성은 구체적 형태와는 관련이 없이 논리적 관계를 설정하는 도시 계획이나, bubble diagram을 들 수 있다. 여기에 Heath의 주장을 적용한다면 적절한

건축공간의 구성은 형태적 정보에 의한 단위공간의 형태와 체계적 정보에 의한 각 단위공간의 공간조직을 서로 결합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주장이 성립된다. 이러한 주장은 건축공간의 구성에 있어서 좋은 이미지의 경우를 적용하는 형태구성식의 디자인 과정에 주변과의 관계를 인식하게 하는 논리를 제공해주며, 도상적인 연결체계, 논리구조를 위주로 접근하는 디자인 과정에는 형태적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범주에서 일반적으로 유용한 카테고리로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의 분류는 일반적인 카테고리 이상의 심도를 갖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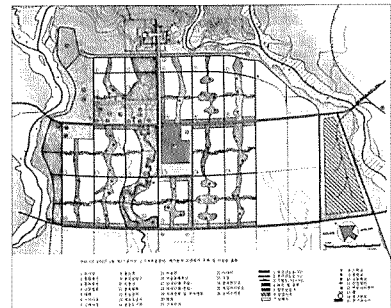


그림 5. 르코르뷔제의 찬디가르 도시계획안-도시의 형태속에 동선체계, 녹지체계 등의 여러 가지 체계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F. L. Wright의 수많은 주택들에 대해 March & Steadman이 하나의 동일한 dual graph로 분석하고 있고(동일한 체계적 정보), 이들 주택의 거실이나 침실의 구성이 비슷한 크기와 성능을 갖고 있다고 분석한다(동일한 형태적 정보). Heath의 이론으로는 이 주택들이 전부 같다는 주장을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실제 이들 주택들에서는 서로 다른 공간경험을 체험할 수 있다. 그것은 두 요소로 설명되지 않는 실제 공간에서의 경험을 변화시키는 다른 요소의 존재를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는 건축설계과정이 두 요소의 결합에 의해 가능하다는 포괄적 정의속에(결합의 무형적인 과정속에) 어떤 다른 과정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Heath로부터 한걸음 나아가 Bonta는 맥락 속의 사물의 의미형성에 대해 체계적(Systematic)인 것과 위치적인(Positional)것을 구분하여 카테고리화 함으로써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상황을 의미와 형태의 구조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건축공간 구성을 위한 인식 범주 확대의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그림 6.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의 조각(게오르크 콜베)-그 위치이기 때문에 조각물과 건물은 특별한 깊을 갖는다

c. 위치적 공간구성

Bonta는 언어학으로부터 유추한 그의 디자인 이론에 대한 주장에서 형태에 대응되는 의미에, 사전적(lexical)인 것과 구조적(structural)인 것이 있으며, 구조적인 것은 다시 위치적(positional)인 것과 체계적(systematic)인 것이 있다고 구분하고 있다. 그는 사전적인 것은 형태가 갖는 고유인 성질을 기술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Heath의 형태적 정보와 같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체계적 의미에 대하여는 형태를 결정짓는(하나의 독특한 형태라고 인정하는)요인으로서 외부와 관련한 체계라는 것이 있음을 주장한다. 그는 장기말을 예로 들면서 기사의 말은 왕과 왕비의 말, 졸과 성곽의 말과 연결된 위계라는 체계속에서 크기나 모양의 경중이 정해질 수 있는 것이며, 장기의 말을 만드는 재료, 가격, 세공도 등에 의해서도 기사의 말의 모양과 특성이 정해질 수 있다는 가정에서 고유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 논의될 수 있는 체계적 의미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사전적인 것과 체계적인 것은 Heath의 형태적 정보와 체계

적 정보에 준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전적, 체계적 두 의미는 실제적 상황의 조건을 생각지 않은 내용이다. Bonta는 상황조건을 제시하면서 위치적 의미를 찾아낸다.

즉 장기말이 장기통 속에 뒤섞여 있는 경우에 위치적 의미는 작용하지 않는다. 뒤섞인 장기말은, 예를 들면 졸의 경우, 그 개개의 특성은 사라지며 모두 같은 졸일 뿐이다. 기사나 왕 등의 장기말의 제반 문맥(context:여기서는 체계)을 생각할 때 졸의 존재가 드러날 뿐이다. 그러나 만일 장기말이 장기판 위에 놓여지게 되면, 각각의 장기말은 장기판의 구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각각의 장기말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의해 상대방의 말을 잡아먹을 수도 도피할 수도 방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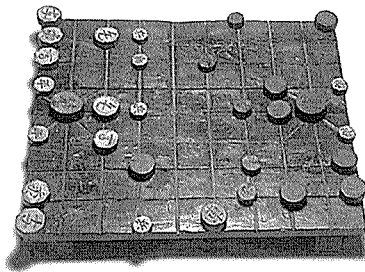


그림 7. 장기판에 놓여있는 졸-같은 졸이지만 장기판 위에 놓여져 있는 위치에 따라 그 값은 전혀 다르다.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가 결국 장기 게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다. 똑같은 모양의 졸의 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다른 졸과 구별되기 때문에 위치적 의미가 더욱 중요해진다. 위치는 실제 상황과 관련된다. 만일 게임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장기말을 인형처럼 열지어 세워 놓는다면, 그 나열된 순서 또는 나열된 모양에서의 위치에 의해서 그 장기말은 다른 의미를 하나 더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대상물(말)이 다른 대상물(말들)과 새로 설정된 위치관계를 만들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다.

Wright의 주택들이 같은 실의 성능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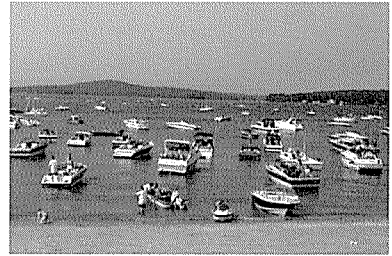


그림 8. 위치의 의미가 없이 바다에 떠 있는 보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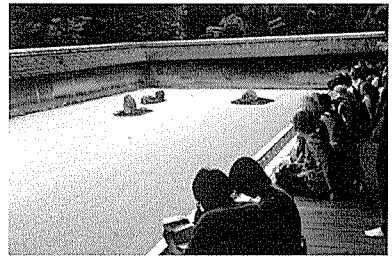


그림 9. 위치의 의미로 흥미를 끄는 일본 교토의 돌의 정원

같은 dual graph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간의 체험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개실이 다른 실 또는 외부의 조건(나무, 향, 조망, 교회탑, 바람의 방향...)들과 새로 설정한 위치관계를 맺음으로써 그것이 조건화된 상황의 위치적 의미를 표출해내기 때문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제적인 상황속에서 대상물과 다른 대상물 사이에 설정된 관계에 관련한 의미, 즉 위치적 의미를 가짐으로써 대상물의 질을 분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사전적 의미나 체계적 의미에 우선하여 위치적 의미가 공간분석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해준다고 하겠다. 또 그러한 시각(범주)으로 보는 것이 사전적, 체계적 의미로 설명되지 않는 실제적 상황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리의 개선문을 예로 들어본다면, 사전적 의미로는 개선문과 그와 다른 것, 건물, 나무, 분수, 오벨리스크, 탑, 도로...등과 구별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체계적 의미는 개선문과 같은 부류를 다른 것과 구별되도록 하는 체계(예를 들면, 도로체계, 옹도체계, 스카이라인 등)를 세워 그 체계속에 속하는 것들, 오벨리스크, 탑, 분수... 등을 선택하도록 할 것이다. 물론 어떠한 다른 체계를 세

워(예를 들면, 돌로 만든 재료의 것 등) 그 체계속의 것을 구별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치적 의미는 그 위치(주어진 상황에 맞는 것, 예를 들면 파리에 입성하는 느낌이 강한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은 개선문으로 정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일 것이다. 바로 위치적 의미가 그것을 그곳에 위치하게끔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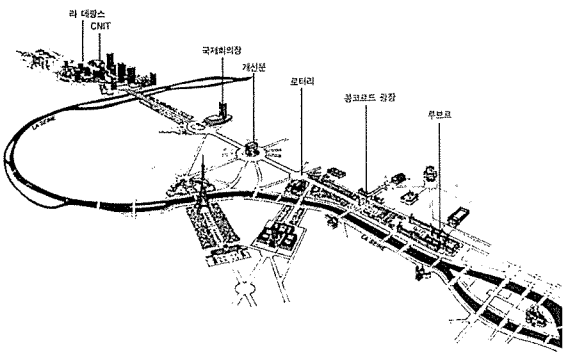


그림 10. 도시의 축을 따라 파리의 개선문으로부터 연결되는 그랑 알슈-그 위치에 그러한 모양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위치적 공간구성을 위해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학교에 있어서 각 강의실(일반적으로 설계할 때 구분 짓는 공간의 한 단위)은 사전적인 의미로써 좌석 수, 면적, 조도, 색상...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며, 그와 같은 것을 결정하고 제공하게 되면 하나의 강의실로서 만족한 구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위 강의실은 학교 건물로서 충족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여러 개가 묶여지고, 또 다른 기능실과 연결되어야 한다. 이때 체계적 의미는 각 실간의 동선관계, 설비체계, 면적크기 관계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즉, 각 실들이 다른 실과 갖는 관계가 어떠한지 알아준다. 이것은 bubble diagram 또는 dual graph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그리하여 각 실의 공간의 배분과 조직망이 구성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건축 공간의 구성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Wright의 주택들이 전부 같지 않듯이) 짜여진 장기판 속에서 한자리를 차지함

으로써 의미를 발휘하는 장기말처럼, 형상을 갖는 평면 속에 실의 위치를 정함으로써, 그리하여 정해진 실의 위치로부터 부여되는 의미를 공간으로 처리함으로써, 건축공간의 구성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동일한 조직에 속하는 강의실들이 정해진 평면형의 중앙, 또는 끝... 등의 위치를 차지하며 놓여지면서 발생하는 의미 그리고 강의실들과 계단이나 화장실, 또는 다른 용도의 실과의 위치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미에 대해 건축적인 처리를 할 때 비로소 건축공간은 실제적인 상황에 적합한 건축적 구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건축물의 형태적 의미와 체계적 의미, 그리고 위치적 의미를 반영하는 건축물의 구성으로 가는 길이다.

위치적 공간구성은 위치가 정하는 상황판(장기판)을 무엇으로 정하는가의 차이에 따라 구성해야 할 내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상황판을 정해진 평면으로 놓고 본다면, 공간을 평면형에 위치시키는 문제는 평면속의 위치가 갖는 의미, 평면 속에 실들 간의 관계, 평면내의 다른 요소와의 위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예를 들면 편복도형 아파트에서 중앙에 있는 주호, 끝에 있는 주호, 계단실 옆의 주호는 서로 다른 위치적 의미(느낌)를 갖는다.) 그리하여 어떤 실의 특정 위치에의 배열을 요구할 것이다.(그리하여 선호하는 위치의 주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배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평면내의 위치적 의미를 고려하여 평면수정을 요구할 것이다.(선호하는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면, 선호하는 위치의 다른 주호를 모색할 것이다. 건축가라면 그것이 선호하는 위치가 될 수 있도록 평면형을 바꾸거나 어떤 장치를 강구할 것이다.) 이것이 평

면속의 개실이라는 위치적 의미를 고려한 공간구성일 것이다.

또 조직된 공간을 대지 위라는 상황판에 위치시키는 경우에는 대지와외의 관계, 주변 건물과의 관계, 주변 환경조건 등이 위치적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그리하여 어떤 실의 특정위치에의 배열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배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지와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평면형상의 수정을 요구할 것이다. 이것이 대지속의 건물이라는 위치적 의미를 고려한 공간구성일 것이다.

이러한 공간구성의 층차적 단계는 지역, 도시로부터 대지, 건물평면, 개실평면...등에 이르기까지 위치를 정하는 상황판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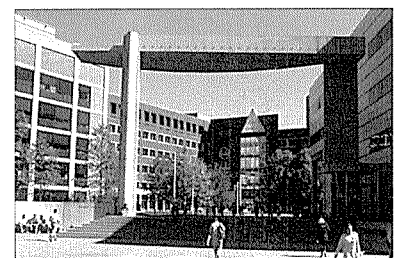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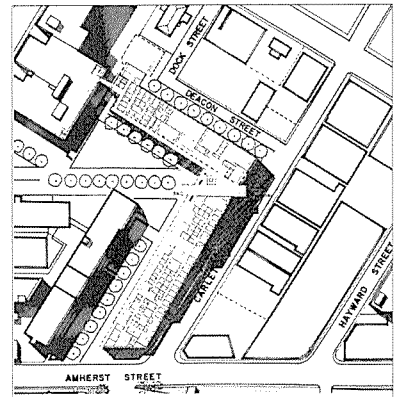


그림 12. 지오폴라의 MIT 생물학 연구소 - 그 위치의 특성에 맞도록 건물이 조정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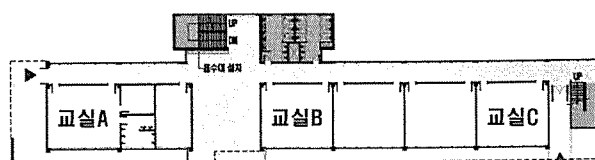


그림 11.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교실의 의미(출입구 교실, 화장실 앞 교실, 복도 끝의 교실)

그림 12는 MIT에 있는 Giurgola가 설계한 생물학 연구소 건물이다. 6층의 ㄱ자형의 단조로운 건물이지만 이 건물이 유명한 이유는 MIT의 보행축과 전철역(kendall)을 잇는 보행로를 연결하기 위해 건물을 관통하는 통로를 살렸다는 점이다. 6층까지 open된 공간으로 시각적 초점을 이루며 설치된 아트리움형 통로는 건물과 통로의 축이 직교하지 않는다. 즉 외부에서 오는 통로의 축이 건물의 축과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관통하게 되어있다. 건물은 캠퍼스의 대지축에 맞춰 세워지고 건물밖의 통로가 건물을 직접 관통하게 만들면서 내부공간을 꾸민 것이다. 일반적인 건물이라면 일상적인 건물축과 통로패턴에 의해 형성되었지만 이 건물은 그 위치(전철역과 캠퍼스를 연결하는 중간지점)에 놓여져 있음으로 해서 그 의미를 살려 건물을 구성한 것이다.

일건에서 설계한 대덕 연구단지내의 '기초과학연구 지원센터'의 프로젝트에서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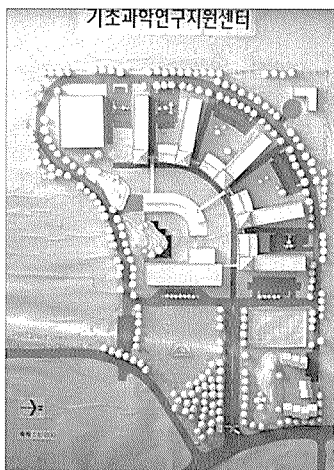


그림 13. 기초과학지원센터 배치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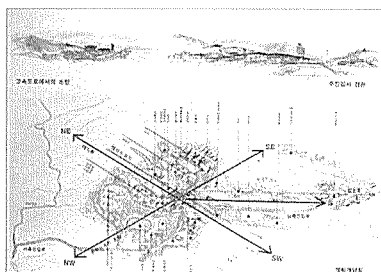


그림 14. 단국대학교 분당 신캠퍼스 현상설계안의 개념도-공간의 위치적 의미를 보여준다.

지는 공간의 위치관계는 보다 명확하다. 이 시설은 연구와 지원기능의 복합시설이다. 지원기능의 연구 지원동과 연구부분의 연구동, 그 둘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과제의 중요한 목표이었다. 결국 그림 13과 같은 배치안이 최종안으로 선택되어졌다. 지원동과 연구동이 전면 주진입상에서 양쪽으로 대등하게 배열된다. 연구동은 연구의 성격에 따라 각자 독립된 이미지로서 보여질 수 있도록 형태화되었고, 원형으로 배치되어 상징적으로 중심 지원 시설로의 연관성을 표현한다. 최종안은 실제 다르게 지어지기는 하였으나 초기의 개념은 유지되었고, 건물의 세부적인 디자인에까지 영향을 주어 위치의 문제가 단순한 배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원동과 연구동은 동일한 층수에 비슷한 건물길이로서 중심축으로부터 양쪽으로 동등하게 분할된 모습이지만, 연구동은 건물의 규모면에서 지원동에 비해 커, 전면 진입시 투시도 효과에 의해 연구동의 느낌이 우세하게 느껴지도록 한다. 이러한 상대적 불균형을 막기 위해 건물의 재료와 창구성이 보완되었으며, 이는 실제로 두 건물의 위계의 형평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주 진입시 건물이 양쪽으로 나뉘져 있기 때문에 건물의 정면성이 상실되고 허전한 느낌을 줄 수도 있으나, 오히려 허공과 비어진 대지가 주요한 시각적 장면이 됨으로서 주변건물들을 통합하는데 좋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는 허허벌판과 같은 원래의 대지와 나중에 지어진 건물들을 일체화 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많은 건물들이 자기중심적으로 건축되어 주변건물이나 대지와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배치는 위치에 맞도록 형성된 건물들의 관계에 하나의 답을 제안하였다고 생각된다.

인간의 삶의 가치를 다루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의 위치적 의미는 색다르다. 그림 15는 각국의 법정 평면도이다. 판사석과 피고, 변호인석, 기소자석, 배심원석 그리고 서기와 관중석은 기본적인 공간관계로서 법정안에 배치되지만 그들의 각각의 위치에 의해 형성되는 시선의 문제와 누구와 누구를 가깝게 위치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미묘하다. 공산국가의 법정에서 피고가 매우 삭막하게 자리하는 한편, 제네바의 법정에서는 증언대의 위치가 직접적이다.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정의 구성은 매우 정교해야 할 것 같다. 위치상으로 편파적이지 않아야 하며 공정한 판단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공간의 위치적 의미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치적 공간구성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특히 많이 경험되면서도,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는, 또는 그 중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공간구성의 인식범주라 생각하며, 위치적이라는 것을 실제적인 평면상에서 그리고 실제적인 이용에 있어서 마치 게임을 살아가는 인간을 보듯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할 때 좀 더 깊이 있는 건축공간의 구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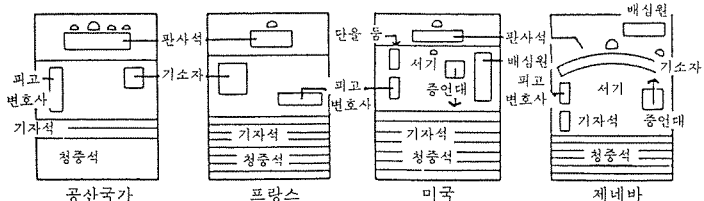


그림 15. 각국의 법정 평면도